



4월 14~15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 대화산 계곡에서 열린 은정 청소년 캠프에 참석한 어린이 학생들과 학부모 등 70여명이 각양각색의 꿈을 담은 오색 풍등을 앞에 놓고 밝게 웃고 있다.

“청소년 불자가 희망”

10년간 장학금 16억 보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상임이사 성월 스님

“초대 이사장이신 정대 스님의 인재양성 원력을 이어 함께 만들어가는 ‘은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은정청소년캠프를 연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상임이사 성월 스님(사진)은 “前이사장 정대 스님의 재단안정 기반 마련과 해외사업 자습 스님의 관심으로 재단 10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창립 이후 14억 4000만원에 달하는 기금을 세씩 포교에 장학금으로 보시했다. 2009년 불교계 최초로 전국규모로 개최한 불교고교리경시대회가 지 합하면 장학금 액수는 총 16억 원에 달한다.

성월 스님은 “‘사람이 희망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준비한 이번 캠프는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은정재단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자리”라며 “재단 10주년을 맞아 장학생들과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불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꿈 실은 풍등 두등실 날리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10주년 맞아 제1회 청소년 캠프 ‘레크리에이션’ ‘명상놀이’ 등 장학 수혜자들이 진행

“부처님, 우리 가족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착한 언니가 너무 아파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얀 한지 위에 고사리 같은 손이 바쁘게 움직인다. 저마다 정성스럽다. 각자의 소원을 쓰는 중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원을 쓴 한지를 붙여 그려 여념이 없다. 열기구 모양의 풍등 겉면에 소원을 쓴 종이를 붙여 하늘에 띄우기 위해서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습)이 10주년을 맞아 4월 14~15일 개최한 제1회 은정 청소년 캠프장의 풍경이다.

이날 행사가 열린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의 대화산 계곡에는 학생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속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새내기부터 졸업과 함께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들이 있었다. 이들은 전통체험행사, 레크리에이션 등을 함께 하며 자신의 꿈을 되새겼다.

캠프는 오후 2시 입제식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첫 캠프에는 상임이사 성월 스님을 비롯해 그동안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과 학부모 등 총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성월 스님은 “한국불교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 불자들이 함께 모여 신심을 고취시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장학재단이 단순한 장학금 전달에서 벗어나 쌍방향 소통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화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제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 인사말, 사홍서원 순서로 진행됐다. 입제식 행사가 끝나자 5개조로 나눠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행사라서인지 금새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강당안이 시끌벅적해 졌다.

각자의 조이름도 청소년들이어서 인지 다채로웠다. 불교를 상징하는 ‘보리수’도 있었고, 참가한 학부모의 막내딸 이름을 따서 ‘영주’로 지은 조도 있었다.

“햇살! 햇살! 햇살! 보리수 셋”
“보리수! 보리수! 보리수! 잭팟 돌”
어색함도 잠시였다. 처음만나 이들도 게임을 함께 하며 이내 밝은 웃음을 터뜨렸다.

“캠프에는 처음 와보는데 딱딱할 줄 알았던 프로그램이 재미있네요.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학교생활을 잘 할 것 같아요.”

평택이고 1학년 박주희 학생은 “친구 두 명과 함께 참여했다. 친구들은 은정 장학생이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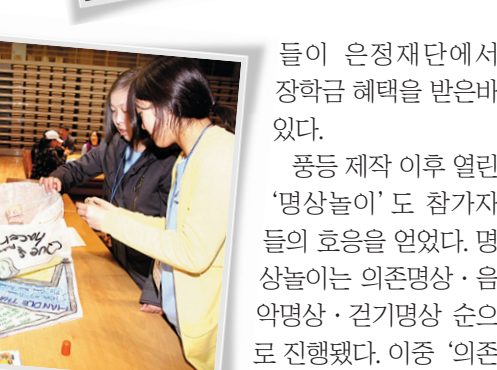
만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함께 참여하고 권 유했는데 그러길 잘했다”고 즐거워했다.

옆에 있던 서정원 학생(동국대 불교학과 3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였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캠프 운영하는 데 적은 노력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참여했다.”고 자랑 있어 했다.

이렇게 서정원 학생뿐만 아니라 이날 캠프에는 은정 장학생 출신 대학생들이 재능을 기부해 훈훈함을 더해 줬다.

레크리에이션으로 친목을 다진 이들은 풍등을 제작하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접해 볼 기회가 없는 참가 학생들이지만 이상중 연등축제 기술 감독의 재치 넘치는 진행 덕분에 풍등을 날리는 학생들의 눈빛은 진지하면서 즐거움이 역력했다.

정선경, 정원형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산림복지관 봉사활동으로 은정재단과 인연을 맺은 박정심 씨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풍등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져 주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적었습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산림복지관에서 10여 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박 씨는 불자인 복지관 선생님의 추천으로 자녀



들이 은정재단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은바 있다.

풍등 제작 이후 열린 ‘명상놀이’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명상놀이는 의존명상·음악명상·감기명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중 ‘의존명상’은 서로 신체접촉을 통한 느낌을 집중하는 명상법으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목경찬 교수의 ‘사람이 희망입니다’ 강연과 저녁공양 이후 촛불소원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의 꿈을 담은 풍등은 하나 둘 날아 올라 하늘을 수놓았다. 하늘로 오른 오색 풍등이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참가자들은 자신의 꿈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다.

임명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는 “캠프 대부분이 은정장학금 수혜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며 “이번 캠프를 기해 장학생 선�후배들이 함께 동참하고 꿈을 공유하는 장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주 대화산=노덕원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심 품고 하늘 날겠다”

미국연방항공청 조종사 자격증 획득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장학생 이승원 씨

“해의 유학 어려운 고비마다 은정재단의 도움이 큰 힘이 됐습니다. 항공기 조종사가 꼭 돼서 받은 혜택을 회향할 수 있는 진정한 불자가 거듭나겠습니다.”

2009년 은정장학생으로 미국에서 미국연방항공청(FAA) 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돌아온 이승원 씨(28·사진)는 “해의 유학 시절마다 은정장학생으로서 불교계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의 기회도 많고 급조조건도 전문직 수준이라는 이유로 조종사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을 받고 있는 직업이다. 항공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공군사관학교와 같은 군 경력을 인정받거나 항공관련 대학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내에는 마땅한 훈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이 중 미국연방항공청(FAA)이 발행하는 항공 면장은 국내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이기에 때문에 미국 유학에 오르는 이들이 많다.

이 씨는 “군 제대 이후 출국 전 봉사법회에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곤 했다. 힘들 때면 LA에 위치한 불광사를 참배했다”며 “금전적인 면을 떠나 한국에서 누군가 후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훌륭한 항공기 조종사가 꼭 되겠다”고 밝게 웃었다.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년 신제품 경전학습기

백천만점난조우
白千萬劫難遭遇

영불(念佛), 영송(念誦) 모음

영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영불, 부모은중경, 백발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심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필양심주경, 보왕삼매론

영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장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이프, 민중넷센스, 현대국편, 수능 및 토출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